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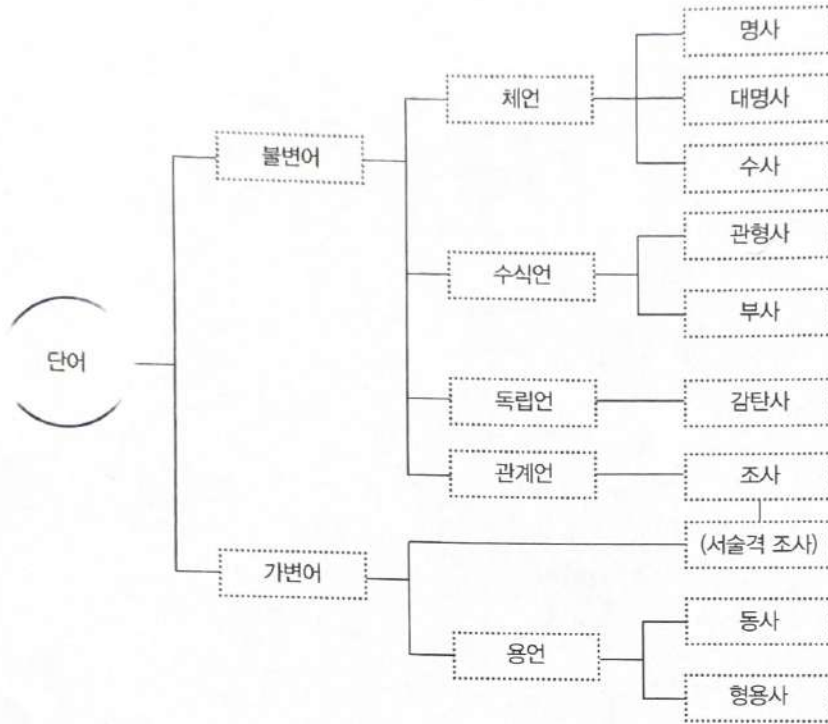


Day.2

1 품사

1. 품사: 단어를 형태적·기능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지어 놓은 것. 국어의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9가지가 있음

2. 품사의 분류



3. 품사별 특성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음
용언	동사 형용사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주로 서술어로 사용되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음
수식언	관형사 부사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관계언	조사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쓰임에 따라 격 조사와 보조사, 접속 조사로 나뉨
독립언	감탄사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

(1) 명사: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 구체적 혹은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냄

예 철수, 산, 나무, 사랑

- 지시 대상의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뉨

예 이순신, 제주도(고유 명사) / 책상, 우정(보통 명사)

-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뉨

예 하늘, 구름(자립 명사) / 것, 따름(의존 명사)

(2) 대명사: 사물이나 사람,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

-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와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있음

예 인칭 대명사: 나, 너, 그, 우리

지시 대명사: 저것, 여기, 이곳

-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미지칭,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칭, 앞에서 한 번 나온 명사나 대명사를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를 재귀칭이라 함

예 미지칭: 누구, 무엇, 어디

부정칭: 아무, 아무개

재귀칭: 자기, 저 당신



'누구':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 구별하기

예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vs.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미지칭

부정칭

: '누구'는 미지칭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정칭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음



일반적인 대명사와 재귀칭 대명사 구별하기

- 한 문장 안에서 앞서 나온 체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대명사를 재귀칭 대명사라고 함. 그런데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재귀칭 대명사(3인칭)와 1인칭 또는 2인칭 대명사로 문맥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음

일반적인 대명사		재귀칭 대명사
<p>예 선생님께서 <u>저</u>도 함께 오라고 하셨습니다.</p> <p>형님께서 <u>저희</u> 때문에 고생하시는군요.</p> <p>교실 유리창을 깬 사람은 <u>제가</u> 아닙니다.</p> <p>여보, 언제나 <u>당신</u>의 말에 귀를 기울일게요.</p>	vs.	<p>예 소년은 <u>저</u>도 모르게 자리에 주저앉았다.</p> <p>동생들은 내가 <u>저희</u> 때문에 밥을 차린 줄 안다.</p> <p>그 꼬마는 <u>제가</u> 궁금한 것을 선생님께 여쭙었다.</p> <p>할머니께서는 생전에 <u>당신</u>의 장서를 아끼셨다.</p>

(3)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

- 수량을 세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가 있으며,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있음

예 양수사: 하나, 둘, 셋, 일(一), 이(二), 삼(三), 서넛, 너댓

서수사: 첫째, 둘째, 셋째

(4) 동사: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함

예 자동사: 피다, 일어나다

타동사: 보다, 찾다, 먹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함. 그런데 때로는 하나의 동사인 데도 목적어를 취하는 것과 취하지 않는 용법을 모두 가진 것이 존재함

자동사		타동사
<p>예 뜨거운 물에 손이 <u>데었다</u>.</p> <p>바위가 저절로 <u>움직이기</u> 시작했다.</p> <p>오후가 되자 내리던 비가 잠시 <u>그쳤다</u>.</p> <p>잘 돌아가던 시계가 오늘 갑자기 <u>멈추었다</u>.</p>	vs.	<p>예 불에 팔을 <u>데었다</u>.</p> <p>나는 몸을 <u>움직여서</u> 자세를 바꾸었다.</p> <p>아기는 울음을 <u>그치고</u> 주위를 둘러보았다.</p> <p>그녀는 가던 길을 <u>멈추고</u> 뒤를 돌아보았다.</p>

(5) 형용사: 사물이나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 성질이나 상태를 직접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와 사물의 성질, 시간, 수량 따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지시 형용사가 있음

예 성상 형용사: 예쁘다, 하얗다, 낮다

지시 형용사: 그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참고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기

- 용언으로 묶이는 동사와 형용사는 어미를 취하여 활용을 하며,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임
- 의미론적으로 보면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차이점이 있음
- 활용 방식에서 아래의 어미(혹은 어미 결합체)는 동사와만 결합하고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음

㉠ '-ㄴ-' / '-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예 동사: 간다 / 먹는다 <비교> 형용사: *작는다 / *예쁘다

㉡ '-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예 동사: 가는 / 먹는 <비교> 형용사: 작는 / *예쁘는

㉢ '-아라' / '-어라': 명령형 종결 어미

예 동사: 가라 / 먹어라 <비교> 형용사: 작아라 / *예뻐라

형용사에 '-아라' / '-어라'가 결합할 경우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감탄의 의미

㉣ '-자': 청유형 종결 어미

예 동사: 가자 / 먹자 <비교> 형용사: 작자 / *예쁘자

㉤ '-(으)려고', '-고자': 의도나 목적의 연결 어미

예 동사: 가려고 / 먹고자 <비교> 형용사: 작으려고 / *예쁘고자

(6) 관형사: 체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상 관형사,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표시하는 수 관형사가 있음

예 성상 관형사: 새, 흰, 옛, 맨

지시 관형사: 이, 그, 저, 요, 고, 조, 이런, 그런, 저런

수 관형사: 한, 두, 세/서/석, 네/너/넉, 다섯/뎛, 첫째, 둘째

참고 수사와 수 관형사 구분하기

예 사람 다섯이 각각 사과 다섯 개를 들고 왔다.

수사 수 관형사

셋이 찾아왔어요. vs. 학생 세 명이 찾아왔다.

수사 수 관형사

: 수사는 조사 결합이 가능하지만, 수 관형사는 조사가 결합하지 못하고 뒤의 명사(의존 명사)를 수식함

7) 부사: 용언이나 문장 등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예 너무, **헛**딱, 어찌, 매우, 설마, 비록

집중 부사의 특징

· 관형어나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드물게 체언을 꾸미기도 함

예 **아주** 새 책이다. / 동생이 **아주** 빨리 뛰었다. /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움

예 **어서** 집에 가거라. / 집에 **어서** 가거라.

·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가 있음 (문장 부사에는 '그리고, 그러나'와 같은 접속 부사도 포함)

예 성분 부사: 배가 **너무** 고파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부사 '너무'가 서술어 '고파서'를 수식)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맞이하기로 했다.(부사 '일찍'이 서술어 '일어나서'를 수식)

문장 부사: **과연** 그가 오기는 할까?(부사 '과연'이 문장 전체를 수식)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 문장 맨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것도 가능.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는 대부분 문장 부사

예 **과연** 지희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까? /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집중 수식어로 품사 구별하기

· 명사를 포함한 체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예 그는 **승리의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다.: '기쁨'은 관형어 '승리의'의 수식을 받는 명사

나는 **놀라운 꿈**에서 깨어나 멍하니 있었다.: '꿈'은 관형어 '놀라운'의 수식을 받는 명사

출산하는 새끼의 수는 **어미의 크기**에 비례한다.: '수'는 관형어 '새끼의'의 수식을 받는 명사, '크기'는 관형어 '어미의'의 수식을 받는 명사

· 용언(동사와 형용사)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음

예 아무리 급해도 **바로 떠나기**는 어렵다.: '떠나기'는 부사어 '바로'의 수식을 받는 동사

우리들은 **효율적으로** 살을 **빼기**로 했다.: '빼기'는 부사어 '효율적으로'의 수식을 받는 동사

(8) 조사: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수한 뜻을 더해주는 말

- 격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로서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등이 있음

예 이/가, 게서, 에서, 을/를, 이/가 '되다', '아니다' 앞), 이다, 의, 에, 에서, (으)로, 아/아

- 보조사: 격을 표시하지 않고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예 은/는(대조), 만(단독), 도(포함)

- 접속 조사: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예 와/과, 하고

집중 조사의 특징

-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함(격 조사)

예 누나^가 어머니^의 선물^을 사고 있다.

-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줌(접속 조사)

예 개나리^와 진달래^를 아빠^랑 내가 심었다.

- 앞말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선택됨

예 형^이 누나^가 내 모자^를 쓰고 갔다고 말했다.

- 둘 이상의 조사가 결합하기도 함

예 아이^{에게}도 아이^{만의} 비밀이 있는 법이다.

- 구나 절 단위에 결합하기도 함

예 나는 [골목과 마당]을 서성이며 [형이 오기]를 기다렸다.

조사의 출현 양상

- 보조사의 앞뒤로 격 조사가 붙지 않은 경우(보조사만 나타나는 경우)

예 너^{까지} 우리를 믿지 못하다니 무척이나 실망이다.

엄마^는 막내^{마저} 시집을 가고 나니 눈물이 나왔다.

- 보조사의 앞에 격 조사가 붙은 경우

예 선생님^{께서} 나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도 않으셨어.

이번^{에는} 진주도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간다고 한다. 주의 예는: 예(격 조사) + 는(보조사).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

- 보조사의 뒤에 격 조사가 붙은 경우

예 너^{만을} 예외로 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

- 보조사가 체언 이외에 부사, 어미 등에 붙은 경우

예 너^{까지} 우리를 믿지 못하다니 무척^{이나} 실망이다.: 보조사가 부사와 결합

선생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지도} 않으셨어.: 보조사가 어미와 결합

(9) 감탄사: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로서 다른 말과 떨어져 혼자서 쓰일 수 있음

예 앓, 와, 얼씨구, 오호, 아, 네

- 주의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감탄사인 것은 아님

예 형, 이것 좀 봐.: '형'을 부르고 있으나, '형'은 감탄사가 아니라 명사

4. 품사의 통용

입중 하나의 형태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처리되는 것을 구별해야 함

예	보고서를 언제 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대명사	vs.	시간이 되면 언제 밥이나 먹읍시다. 부사
	그는 이번에도 잘못 을 저질렀다. 명사	vs.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맸다. 부사
	서로 가 힘을 합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명사	vs.	그 둘은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부사
	밥을 먹고 어디 같이 가 볼 데가 있다. 대명사	vs.	얼마나 잘 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감탄사
	책의 제목은 '한중 철화의 비교적 고찰'로 결정되었다. 관형사	vs.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부사

5. 용언 알아보기

(1) 본용언과 보조 용언

- 본용언: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용언
- 보조 용언: 본용언에 기대어 의존적으로 쓰이면서 문장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
-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아서/-어서' 등과 같은 다른 문장 성분이 끼어들 수 없음

본용언 + 본용언	본용언 + 보조 용언
예 옷을 사 입다 . (= 옷을 사서 입다.)	예 밥을 먹어 버리다 . (≠ 밥을 먹어서 버리다.)

입중 본용언과 보조 용언 구별하기

예	몸에 무리가 간다 . 본용언	vs.	우리도 이제 숙제를 다 마쳐 간다 . 보조 용언
	그는 며칠 전 직장 근처로 집을 옮겨 왔다 . 본용언	vs.	그는 우리 회사에서 30년도 넘게 일해 왔다 . 보조 용언

주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일 경우 그 둘 사이에는 '-아서' / '-어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끼어들 수 없음

예 누나는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내었다**. <비교> 누나는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서** 내었다.
본용언 보조 용언

(2) 어간과 어미

- 어간: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 어미: 어간에 지나나 앞사귀처럼 붙는 부분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3) 규칙 활용: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거나, 변하더라도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4) 불규칙 활용: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그 현상을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 어간이 바뀌는 경우

'ㅅ' 불규칙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 예 짓- + -어 → 지어: 밥을 <u>지어</u> 부모님을 봉양하다. 잇- + -어 → 이어: 이 다리는 섬을 육지와 <u>이어</u> 줍니다.
'ㅂ' 불규칙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ㅂ'이 'ㄷ/ㅌ'로 바뀜 예 덤- + -어 → 더워: 날이 유난히 <u>더워</u> 힘들겠구나. 줍- + -어 → 주워: 길에서 책을 <u>주워</u> 가방에 넣었다.
'ㄷ' 불규칙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뀜 예 듣- + -어 → 들어: 내 말을 잘 <u>들어</u> 보아라. 싣- + -어 → 실어: 짐을 잔뜩 <u>실어</u> 보냈다.
'ㄹ' 불규칙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ㄹㄹ'로 바뀜 예 오르- + -아 → 올라: 옥상에 <u>올라</u>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르- + -아 → 달라: 그 사람과 성격이 <u>달라</u> 같이 일하기 힘들다.
'우' 불규칙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우' 탈락 예 푸- + -어 → 퍼: 지하실에 고인 물을 <u>퍼</u> 날랐다.

- 어미가 바뀌는 경우

'여' 불규칙	'하'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뀜 예 좋아하- + -아 → 좋아하여: 그는 그녀를 <u>좋아하여</u> 청혼을 했다. 깨끗하- + -아 → 깨끗하여: 물이 <u>깨끗하여</u> 발을 담갔다.
'려' 불규칙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 '-어'가 '려'로 바뀜 예 푸르- + -어 → 푸르려: 하늘이 빛나고 <u>푸르려</u> 다.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어'가 오면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바뀜 예 파랗- + -아서 → 파래서: 바다가 <u>파래서</u> 뛰어들고 싶었다.
---------	--



기본형이 동일하더라도 의미에 따라 활용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예 [유물을 땅에 묻다: 묻으니, 묻어서, 묻었다, 묻어라 → 규칙 활용
-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묻다: 물으니, 물어서, 물었다, 물어라 → 불규칙 활용 ('ㄷ' 불규칙)
- [커튼을 걸다: 걸으니, 걸어서, 걸었다, 걸어라 → 규칙 활용
- [친구와 함께 산책로를 걸다: 걸으니, 걸어서, 걸었다, 걸어라 → 불규칙 활용 ('ㄷ' 불규칙)

2 형태소와 단어

1. 형태소: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의 단위

• 형태소의 종류: 자립 형태소는 모두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에는 실질 형태소도 있고 형식 형태소도 있음

예 저 넓은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 오래 살았다.		
의미의 성격	자립성 유무	의존 형태소 (용언의 어간, 조사, 어미, 접사)
실질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의 어간,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저, 밭, 사람, 이, 마을, 오래	넓-, 갈-, 있-, 살-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	-은, 을, -고, -는, 은, 에, -았-, -다

집중 형태소의 결합 제약

• 특이(유일)형태소: 형태소 중에는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음

예 오슬길(오슬-), 오르막, 내리막(-막), 착하다(착-), 아름답다(아름-), 일으키다(-으키-)

2. 단어: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함

(1) 형태소와 단어의 구분

예 첫눈이 내리자 사람들은 한낮에 산으로 갔다.	
형태소	첫, 눈, 이, 내리-, -자, 사람, -들, 은, 한-, 낮, 에, 산, 으로, 가-, -았-, -다
단어	첫눈, 이, 내리자, 사람들, 은, 한낮, 에, 산, 으로, 갔다

(2) 단어의 구성 요소

어근	파생이나 합성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 예 '꽃사과'의 '사과', '덧신'의 '신', '형님'의 '형', '놀이'의 '놀-'
접사	어근과 결합하여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거나 부분적인 의미만 더해주는 부분 예 '꽃사과'의 '꽃-', '덧신'의 '덧-', '형님'의 '-님', '놀이'의 '-이'

• 단어의 구성 요소 분석

예 발목: 발(어근) + 목(어근) → 어근 두 개로 이루어진 합성어

짓발다: 짓-(접두사) + 발다(어근) → 접두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

나누기: 나누-(어근) + -기(접미사) → 어근과 접미사로 이루어진 파생어

눈가리개: 눈(어근) + [가리-(어근) + -개(접미사)] → 어근에 어근과 접미사로 이루어진 파생어가 결합한 합성어

비빔밥: [비비-(어근) + -(으)ㅁ(접미사)] + 밥(어근) → 어근과 접미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에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

나들이: [나-(어근) + 들-(어근) + -이(접미사) →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에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

집중 어근과 어간 비교

•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 어근은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

•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 동일 요소가 어간으로도 쓰이고 어근으로도 쓰이기도 함

예 놀다(어근: 놀- / 어간: 놀-), 놀리다(어근: 놀- / 어간: 놀리-), 뛰놀다(어근: 뛰-, 놀- / 어간: 뛰놀-)

깨우다(어근: 깨- / 어간: 깨우-), 되찾다(어근: 찾- / 어간: 되찾-)

붙잡다(어근: 붙-, 잡- / 어간: 붙잡-), 애꿎다(어근: 애, 꿎- / 어간: 애꿎-)

먹이다(어근: 먹- / 어간: 먹이-), 꿔이다(어근: 꿔- / 어간: 꿔이-)

3. 단어의 형성

· 단어의 분류: 어근이나 접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구분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 나뭇, 다리, 가다, 밭다	
복합어	합성어	어근 + 어근 ■ 밭목, 오른손
	파생어	접사 + 어근 / 어근 + 접사 / 접사 + 어근 + 접사 ■ 뜻사고, 뜻신, 형님, 놀이, 나누기, 짓밟다, 짓밟히다

(1) 합성어의 형성

· 구성 요소들의 관계에 따른 합성어의 분류

① 대등 합성어: 두 성분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형성된 것

■ 앞뒤, 아들딸

② 종속 합성어: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을 수식하는 관계로 형성된 것

■ 함박눈, 손가락, 쌀밥

③ 융합 합성어: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것

■ 적꼬리(매우 작은 것), 눈알(이주 가까운 장래), 종이호랑이(겉보기에는 힘이 셀 것 같으나 아주 약한 것), 밤낮(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

· 어근의 배열 방식에 따른 합성어의 분류

① 통사적 합성어: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 명사와 명사의 결합

■ 쌀밥, 논밭

·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

■ 새사람

· 용언과 용언은 연결 어미로 이어짐

■ 같이있다: 같-(용언의 어간) + -애(연결 어미) + 입-(용언의 어간) + -대(종결 어미)

파고들다: 파-(용언의 어간) + -고(연결 어미) + 들-(용언의 어간) + -대(종결 어미)

뛰어가다: 뛰-(용언의 어간) + -어(연결 어미) + -가-(용언의 어간) + -대(종결 어미)

돌아가다: 돌-(용언의 어간) + -아(연결 어미) + -가-(용언의 어간) + -대(종결 어미)

· 용언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체언을 수식함

■ 굳은 날: 굳-(용언의 어간) + -르(관형사형 어미) + 살(명사)

■ 젊은이: 젊-(용언의 어간) + -은(관형사형 어미) + 이(명사)

작은아버지: 작-(용언의 어간) + -은(관형사형 어미) + 아버지(명사)

건넌목: 건넌-(용언의 어간) + -르(관형사형 어미) + 목(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의 배열 방식이 문장의 구성 방식에 따르지 않고 이루어진 것

■ 앞밥: 앞-(용언의 어간) + 밥(명사)

김버섯: 김-(용언의 어간) + 버섯(명사)

접칼: 접-(용언의 어간) + 칼(명사)

■ 보슬비: 보슬-(비자립적 어간) + 비(명사)

뛰놀다: 뛰-(용언의 어간) + 놀-(용언의 어간) + -대(종결 어미)

굴주리다: 굴-(용언의 어간) + 주리-(용언의 어간) + -대(종결 어미)

오르내리다: 오르-(용언의 어간) + 내리-(용언의 어간) + -대(종결 어미)

-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부사
예 그녀의 거짓말을 **어제오늘** 겪은 것이 아니다.
그는 **밤낮** 놀 생각만 한다.
- 부사와 부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부사
예 그는 보기와는 다르게 노래를 **곧잘** 한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였다.
-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부사
예 친구들이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2) 파생어의 형성

접두 파생어	<p>어근 앞에 접두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경우</p> <p>예 헛-: 헛고생, 헛걸음, 헛소리 군-: 군말, 군소리, 군침, 군사람, 군식구, 군살 덧-: 덧니, 덧버선, 덧대다, 덧물이다 뒤-: 뒤떨다, 뒤섞다, 뒤바꾸다, 뒤엎다</p>
접미 파생어	<p>어근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경우</p> <p>예 -꾼: 구경꾼, 나무꾼, 살림꾼 -음: 걸음, 웃음, 울음 -질: 가위질</p>

주의 접미사의 기능: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함

- 』-이: 먹이 (동사 → 명사), 많이 (형용사 → 부사)
- 기: 나누기 (동사 → 명사)
- 음: 걸음 (동사 → 명사)

접미사 '-적(的)'

- 접미사 '-적(的)'이 붙은 파생어는 대개 관형사나 명사가 되고 드물게 부사가 됨
-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함
예 그의 견해는 오직 **수학적** 관점만 고려한 것이다.: '수학적'이 '관점'을 수식
- 명사는 조사가 결합함
예 그들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령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이다.
- 부사는 용언(서술어)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함
예 그 가게에서는 학용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팝니다.: '비교적'이 '저렴하게'를 수식
가급적 식사를 집에서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가급적'이 '집에서'를 수식

접두사 vs 접미사

- 접두사: 어근 앞에 붙으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 않음
- 접미사: 어근 뒤에 붙으며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만들기도 함

예 건대(동사) → 걸음(명사), 먹다(동사) → 먹이(명사), 많다(형용사) → 많이(부사)

높다(형용사) → 벽이 높다랗다. (높- + -다랗- + -다: 형용사)

가을 하늘이 드높다. (드- + 높- + -다: 형용사)

그의 사기를 드높이다. (드- + 높- + -이- + -다: 동사(사동사))

파도의 높이를 재다. (높- + -이: 명사)

그는 높이 뛰었다. (높- + -이: 부사)

방의 온도를 높이다. (높- + -이- + -다: 동사(사동사))

명사형 어미 vs 명사 파생 접미사

-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형 어미 '-(으)ㅁ', '-기'와 명사 파생 접미사 '-(으)ㅁ', '-기'의 형태가 같음

명사형 어미 '-(으)ㅁ', '-기'	명사 파생 접미사 '-(으)ㅁ',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간의 원래 품사 유지 • 주어나 목적어 등의 필수 성분 필요 • 선어말 어미 결합 가능 • 부사어의 꾸밈을 받음 <p>예 그가 <u>범인이었음</u>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토끼는 더 빨리 <u>달리기</u>가 어려웠다. 그는 너무 빨리 <u>달리기</u> 때문에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 나는 결승전을 <u>보기</u> 위해 표를 예매했다. 우리 아버지는 테니스 <u>치기</u>를 좋아하신다. 형님은 담배를 <u>끊음</u>으로써 건강을 지켰다. 나는 그가 <u>잠들었기</u>를 바랐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로 품사 바뀜 • 관형어의 꾸밈을 받음 <p>예 그는 고향에 대한 <u>그리움</u>으로 밤을 새웠다. 그 화가는 전원적인 <u>그림</u>을 많이 남겼다. 공손한 <u>말하기</u>는 언어 예절의 기본이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u>꿈</u>을 꾸신다고 한다. 형이 우리 학교의 <u>걷기</u>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녀는 <u>달리기</u> 시합에 출전했다. 이 펜은 <u>굵기</u> 조절이 가능하다.</p> <p>주의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 다른 요소가 올 수 없음</p> <p>예 이 펜은 <u>굵었기</u> 조절이 가능하다.</p>



KEYWORD 1. 품사의 특성과 품사 통용

인칭 대명사 '우리'

2016 사관학교 A형 14번

- '우리'가 상대(2인칭)를 배제하는 경우
예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이 녀석아.
- '우리'가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재귀 대명사 '자기'의 특징

- '자기'는 하나의 동일한 문장 안의 명사나 대명사를 다시 가리키는 것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3인칭이어야 하고, 유정 명사(경,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이어야 함
예 영수는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서 봤다.
: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은 3인칭 유정 명사인 '영수'
이 그림은 그것을(자기를) 그린 사람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이 그림'은 무정 명사이기 때문에 재귀 대명사 '자기'가 아닌 일반 대명사가 쓰여야 함
영수는 동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자기)는 순희도 좋아한다.
: 재귀 대명사 '자기'는 가리키는 대상이 한 문장 안에 있어야 함 (이어진 문장이나 안긴 문장일 경우 하나의 절 안에 있어야 함)

조사 '에서'의 구분

2016 경찰대 04번

- 예 구청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격 조사 (단체)
- 우리 학교에서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격 조사 (단체)
- 이번 체육대회는 부산 경찰서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주격 조사 (단체)
- 요양원에서 건강 달리기 대회를 열어 모두 즐거운 휴일을 보냈다.: 주격 조사 (단체)
-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됩니다.: 부사격 조사 (장소)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만큼', '보다'

- 예 철수는 영수만큼 키가 크다.: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철수는 영수보다 키가 크다.: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두 개의 용언이 보조적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는가?

예 아니오 (㉠)

↓
앞의 용언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는가?

예 아니오 (㉡)

- ㉠: 예 그 종이는 휴지통에 잘 **찢어 버려라**. '찢어'와 '버려라'는 모두 본용언으로 기능하므로, '-어'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아니다.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가서'와 '자야지'가 모두 본용언으로 기능하므로, '-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아니다.
주의 '보조적 연결 어미'는 본용언에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를 의미함
- ㉡: 예 나도 책을 많이 **읽고 싶다**. '읽고'가 생략되면 어색한 문장이 됨
(**싶다**는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보조 용언)
그것만 좀 더 **먹어 보자**. '먹어'가 생략되면 원래 문장과는 다른 의미가 됨
(**보자**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의미하는 보조 용언)

품사 통용: '채'

나는 눈을 감은 ㉠ **채**로 고향을 생각했다. : 의존 명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그는 부모님께 이불 두 ㉡ **채**를 선물로 보냈다. : 의존 명사 (이불을 세는 단위)
그는 ㉢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 부사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
그녀는 항상 당근을 ㉣ **채**를 썰어서 기름에 볶아 먹었다. : 명사 (야채나 과일 따위를 가늘고 길쭉하게 잘게 썰는 일)

- ㉠, ㉡, ㉢은 체언이다.
- ㉠, ㉡은 수식어가, ㉢은 피수식어가 필요하다.
- ㉣은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품사 통용

예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 형용사	vs.	이제 곧 날이 밝는다 . 동사
	왕이여 만세 를 누리소서. 명사	vs.	만세 ! 대한 독립 만세! 감탄사
	그 아이는 얼 을 배우면 백 을 안다. 수사 수사	vs.	얼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관형사
	>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관형사	vs.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형용사

KEYWORD 2. 단어 형성법 / 합성어 / 파생어

단어의 분류

2014 사관학교 B형 13번



- ㉠에 해당하는 단어: ㉠ 나무꾼, 멧쟁이, 바느질, 지우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2014 사관학교 A형 12번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 명사 + 명사 ㉠ 기와집	• 용언의 어간 + 명사 ㉠ 덮밥
• 용언의 연결형 + 용언 ㉠ 들어가다	• 용언의 어간 + 용언 ㉠ 굶주리다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 작은집	

합성법의 특징

- 합성어가 될 때, 'ㄹ'과 조음 위치가 같은 'ㄴ, ㄷ' 등의 자음 앞에서 '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 술 + 나무 → 소나무, 활 + 살 → 화살, 말 + 소 → 마소
- '한자어 + 고유어' 합성어에서 동일한 의미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예 초가집, 양옥집, 국화꽃

파생법의 특징

- ㉠ 멧쟁이, 바가지, 불그스름하다, 잡히다
㉡ 먹이, 얼음, 높다, 정답다

- 파생어의 품사와 어근의 품사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따라 ㉠과 ㉡으로 나눌 수 있다.
: ㉠은 파생어의 품사와 어근의 품사가 동일, ㉡은 파생어의 품사와 어근의 품사가 동일하지 않다.
- ㉠의 '잡히다'와 ㉡의 '높이다'의 경우 그것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구조가 그 어근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구조와 다르다.
예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vs. 경찰이 도둑을 잡다.
사람들이 담장을 높이다. vs. 담장이 높다.

파생 접사와 어미의 구분

	파생 접사	어미
차이점	파생 접사는 상대적으로 분포적인 제약을 많이 받음 : 파생 접사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의 종류가 제한됨 예 넓히다, 보히다, 깊히다	어미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어간에 붙을 수 있음 예 넓고, 보고, 깊고
	파생 접사는 새 단어를 형성하며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있음 예 깊이, 지우개	어미는 어간에 붙더라도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고 새 단어를 만들 수 없음 예 깊고, 지우고
	파생 접사는 동일한 형태라도 의미가 다양할 수 있음 예 놀이: 어떤 행위나 상태 미달이: 어떤 사물이나 일 신문팔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미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음 예 말씀하시다, 일하시다, 결정하시다 : '-시-'는 주체 높임의 의미로 일정하게 고정

01.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 단위로 나누어 아래의 표에 정리하시오.

달빛이 새하얗게 비쳤다.			
단어			
형태소			
자립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02. 다음 단어들이 파생어, 합성어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시오.

들어가다, 셋노랑다, 접칼, 뜨개질, 오가다, 산들바람, 여달이, 젊은이			
파생어		합성어	
접두사가 결합된 파생어		통사적 합성어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		비통사적 합성어	

0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쓰인 전성 어미와 각각의 품사가 무엇인지 쓰시오.

예 나는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꿨다.			
전성 어미	명사형 어미 (-음)	품사	동사
태현이는 다리가 붓도록 걸었다.			
전성 어미		품사	
창밖으로 넓은 들판이 보인다.			
전성 어미	(품사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			
전성 어미		품사	

STEP 3 문법 완성 홀로서기 정답 확인하기

01.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 단위로 나누어 아래의 표에 정리하시오.

달빛이 새하얗게 비쳤다.			
단어	달빛, 이, 새하얗게, 비쳤다		
형태소	달, 빛, 이, 새-, 하얗-, -게, 비치-, -었-, -다		
자립 형태소	달, 빛	실질 형태소	달, 빛, 하얗-, 비치-
의존 형태소	이, 새-, 하얗-, -게, 비치-, -었-, -다	형식 형태소	이, 새-, -게, -었-, -다

02. 다음 단어들이 파생어, 합성어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시오.

들어간다, 셋노랗다, 접칼, 뜨개질, 오가다, 산들바람, 여닫이, 젊음이			
파생어		합성어	
접두사가 결합된 파생어	셋노랗다	통사적 합성어	들어간다, 젊음이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	뜨개질, 여닫이	비통사적 합성어	접칼, 오가다, 산들바람

0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쓰인 전성 어미와 각각의 품사가 무엇인지 쓰시오.

예 나는 크게 <u>웃음</u> 으로써 분위기를 바꿨다.			
전성 어미	명사형 어미 (-음)	품사	동사
태현이는 다리가 <u>붓도록</u> 걸었다.			
전성 어미	부사형 어미 (-도록)	품사	동사
창밖으로 <u>넓은</u> 들판이 보인다.			
전성 어미	관형사형 어미 (-은)	품사	형용사
아침에 일찍 <u>일어나기</u> 너무 힘들다.			
전성 어미	명사형 어미 (-기)	품사	동사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의 차이

국어의 조사 중 '과/와, 하고, (이)랑'은 둘 이상의 단어, 구, 절 등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어의 조사 중 접속 조사와 형태는 같지만 접속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것들이 있다. '과/와, 하고, (이)랑'이 그것이다. 이 조사들이 접속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장의 서술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문장의 서술어는 이른바 '대칭 서술어'가 사용되는데, 만나다, 싸우다, 사랑하다, 친하다, 함께하다, 닮다 등이 대칭 서술어에 해당한다. '내 동생은 아빠와 닮았다.', '나는 철수하고 공원에서 만났다.', '철수는 영수와 싸웠다.'처럼 조사 '과/와, 하고, (이)랑'이 대칭 서술어와 연계하여 앞의 체언이 비교 대상이나 동반 대상임을 나타내면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칭 서술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문장의 '과/와, 하고, (이)랑'이 모두 부사격 조사인 것은 아니다. 앞의 예문들의 어순을 바꿀 경우, '아빠와 내 동생은 닮았다.', '철수하고 나는 공원에서 만났다.', '영수랑 철수는 싸웠다.'의 문장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 예문들에 사용된 '과/와, 하고, (이)랑'은 학교 문법에서 부사격 조사가 아닌 접속 조사로 분류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 문장들을 '[아빠와 내 동생]은 닮았다.', '[철수하고 나]는 공원에서 만났다.', '[영수랑 철수]는 싸웠다.'처럼 주어에 해당하는 체언이 두 개인 문장이고, 그 체언과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기 위해 접속 조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형태가 같은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생략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경우 대칭 서술어가 두 자리 서술어라는 특징에 의해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성분인 부사어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접속 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성분을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출처: 『우리말 문법론』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 '와/과' 비교하기

- 일 따위를 함께 힘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예 나는 오빠와 함께 청소를 했다.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 첨표를 찍을 수 있음

예 개와 고양이는 공을 좋아한다.

- 주의 생략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빠와 나는 닮았다.'에서 '아빠와'를 생략하면 문장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이때 '와'는 부사격 조사로 보아야 함

단, 학자에 따라 '과/와, 하고, (이)랑'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과/와, 하고, (이)랑'을 판단하는 문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음

지문 접미사 vs. 어미

국어에서 단어의 어근과 결합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미와 다르다.

첫째, 파생접미사와 어미의 근본적인 차이는 파생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지만 어미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생접미사 '-이'는 동사와 결합하여 '놀이, 더듬이, 길이, 먹이'와 같은 명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은 '놀-, 더듬-, 길-, 먹-'과는 별개의 단어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다. 이에 비해 어미가 결합한 '놀다, 놀고, 놀지, 놀자, ……' 등은 새로운 단어가 아니어서 이들 각각이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지는 않는다.

둘째, 파생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고 어미는 어간과 결합하는데, 파생 접미사가 어근과 결합할 때는 제약이 심하다. '길이, 많이, 종이, *검이, *작이, *좁이, *맑이'에서 알 수 있듯이 파생접미사 '-이'는 어근과의 결합에 제약이 심하다. 반면에 '길게, 많게, 좋게, 검게, 작게, 좁게, 맑게'에서처럼 어미의 경우에는 어간과 결합할 때 별다른 제약이 없다.

셋째, 파생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파생접미사는 '장난꾸러기, 가위질' 등과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한정적 접사와 '아름답다'에서의 '-답-', '길이'의 '-이'처럼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미는 어간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없다.

넷째, 파생 접미사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지만 어미는 의미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파생접미사 '-이'의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봄맞이, 털갈이, 쥐불놀이'에서는 '…하는 일'을 의미하고, '재떨이, 옷걸이, 목걸이'에서는 '…하는 도구'를 의미하며, '구두닦이, 신문팔이, 때밀이'에서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어미는 의미가 일정하여 예측이 쉽다.

출처: 『우리말 문법론』

파생 접미사 vs. 어미

• 파생 접미사는 어근에 결합되며, 새로운 단어(파생어)를 만들

예 내 몸의 **움직임**이 점차 둔해지고 있다.

아침 **달리기**는 건강에 도움을 준다.

•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결합되며, 선어말 어미가 삽입되거나 다른 어미('다, -고, -며' 등)로 교체되는 것이 가능함

예 배가 **움직임**에 따라 내 몸도 같이 흔들렸다.

나는 동생이 빨리 **달리기/달렸기**를 기대한다.